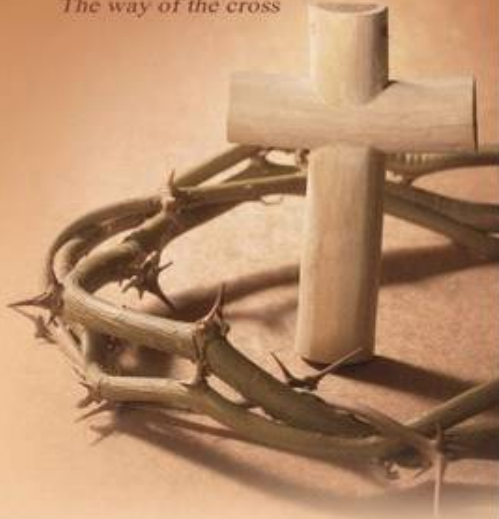


고난주간 묵상집

The way of the cross



1 예루살렘 입성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자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막11:1-11)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으로 공공연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입성 후 먼저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속에서 인간의 위선과 탐욕, 가증스러움, 이기주의 등의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는 이처럼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케 하기 위해 채찍을 드셔야 했습니다.

묵상

1. 예수님은 당당하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성에 입성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2. 오늘 내 마음 속을,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2 성전을 정결케 하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바둑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며...” (막11:15-19)

당시 성전 안에서는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였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시장과 같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73예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17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성결케 하시려는 주님의 표징이 됩니다.

묵상

1. 나의 신앙은 혹시 이기주의,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나요?
2. 예수님은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충돌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3 과부의 두 렵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막12:41-44)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그들의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한 과부는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되 ‘도리’를 따라 드렸지만 과부는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드림으로 불편함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희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희생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묵상

1.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생활, 헌신의 삶을 살니까?
2. 다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급으로만 바쳤지만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바쳤습니다. 이는 습관을 좇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4 한여인의 헌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막14:3-9)

예수께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이 향유는 무척 비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충동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통해 나를 낳으셨음을 체험할 때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있나? 적당히 하지!" 라는 불평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께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9절)

묵상

1. 내게는 적당히 손쉽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없습니까?
2.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함"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의 말씀에서 '봉사의 기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게와진 봉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5 최후의 만찬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14:22-25)



예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영원한 영혼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묵상

1. 나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2. 성례전적 삶을 결단합니다. (성례전적 삶이란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세상에 베풀며 사는 것 의미)

6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막15:33-41)

가장 철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케 합니다.

1.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2.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개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3.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니다.
5. "내가 목마르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갈증입니다.
6. "다 이루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7.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묵상

1. 용서함 받은 나는 역시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2. 훗날 내가 남길 유언을 생각해 봅시다.

7 무덤 속의 예수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문에 놓으매..." (막15:42-47)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로 만들어 둔 무덤에 예수를 장사지냈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지만 이제는 관헌의 박해와 친지들의 차가운 눈총을 무릎 쓰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덤의 어두움을 제거하셨으며 그 공포를 영원히 쫓아 버리셨습니다. 죽음이 그 쏘는 살로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그 위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묵상

1. 무덤 속에 장사지내야 할 내 죄의 목록을 생각해 봅시다.
2. 요셉처럼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찾고 따를 수 있나요?

8 부활의 주를 만난 삶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눅24:34)

금요일에 장사지낸 바 된 예수님께서서는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 부활 사건이 전해진 그날 오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실의에 빠진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 용기를 얻었다는 기록입니다.

클로바와 다른 한 제자는 그날 아침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 사이에 동행하시면서 구약성서를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아야 할 것과 고난 후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후 그들의 목적지까지 도달하여 떡을 떼실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용기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16:12절에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16)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저희에게 떼어 주실 때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

1. 부활신앙은 어두운 인생에 새 창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창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2. 매일 매일 부활의 증언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묵상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살피면서 오늘의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기획·제작 : 진흥이엔타 TEL 02-460-0790
본 자료의 일의 인용 및 무단복제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